

# 코로나19 대유행, 공포→분노로 감정 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지만, 대유행 이후부터 분노를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된 트위터 게시물 약 2000만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발병 초기 1월에는 사람들이 게시물에서 공포를 많이 나타냈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4월부터는 분노가 더 많았다. 연구팀은 유행병 초기에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이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꼈다고 분석했다. 초반 게시물에는 '첫 번째 사례', '발병'과 같은 공포를 조장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공포감이 줄고, 분노를 담은 게시물이 늘었다. 특히 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을 뜻하는 '제노포비아'가 담긴 게시물이 눈에 띄게 많았다. 연구팀은 중국과 아시아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인종차별주의자' '중국인' 등 단어가 많이 등장해 외국인 혐오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분노는 사람들이 집에 고립되고 은둔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증가했는데, 분노를 드러내는 욕설과 함께 '집에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았다.

분노를 줄려면, 실내에서 창문을 열고 햇볕에 드는 곳에서 운동할 수 있다. 햇볕을 쬐며 운동을 하면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량이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인

을 만나기 어렵더라도, 전화나 SNS를 사용해 자주 대화하고 일상을 나누며 타인과 소통하면 좋다.

난양기술대학 연구팀을 이끈 린원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엔 강한 공포감이 주된 정서였지만 4월 초부터 공포가 줄고 분노가 늘어났다"며 "정부, 보건당국, 시민이 협력해서 감정이 악화되

는 것을 막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퍼지는 등 불신이 생겨 방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인터넷 의학연구저널(JMIR Public Health & Surveillance)'에 발표됐다.

**스트레스 많은 사람, '코로나' 걸리면 빨리 악화**

▲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빠르게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빠르게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403명을 포함한 53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들의 혈액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준을 측정했다. 연구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774nm/L 이상으로 높은 사람은 평균 15일 생존했지만, 744nm/L 미만으로 낮은 사람은 평균 36일 동안 생존했다.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질병이나 스트레스 변화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성되는 물질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휴식을 취할 때 코르티솔 수치는 100~200nm/L이며, 잠을 잘 때는 거의 0nm/L에 가까워진다.

연구를 주도한 왈지트 딜로 박사는 "코로나19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있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향후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코르티솔이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랜셋 당뇨병 및 대분비학(The Lancet Diabetes & Endocrinology)'에 최근 게재됐다.

## "빛 쬐면 코로나 호전" 트럼프 말 현실로? 美 연구진 엑스레이 임상 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쬐면 상태가 호전된다." 최근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다. '햇빛이나 자외선을 쬐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었을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모하드 칸 박사 등 미국 에모리대 연구진이 최근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논문사전발표 사이트(medrxiv.org)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회복 원리에 대해 "광선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일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동료평가(Peer Review)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이 임상을 시작한 건 지난 4월 24일.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자외선 노출 등을 언급한 다음 날이었다. 당시 트



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햇빛을 쬐거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오래 남아있지 못한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몸에 엄청나게 많은 자외선이 나 아주 강력한 빛을 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

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실험의 직접적 관련성은 부인했다.

실험엔 43~104세 사이(중위연령 78세)의 지원자 10명

이 참여했고, 모두 코로나19로 병세가 악화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15그레이(방사선량 측정 단위)의 방사선을 쬐게 했다. 이 방사선량은 암 치료보다는 적지만 일반 엑스레이 촬영의

▲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000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 치료 뒤 임상 회복에 걸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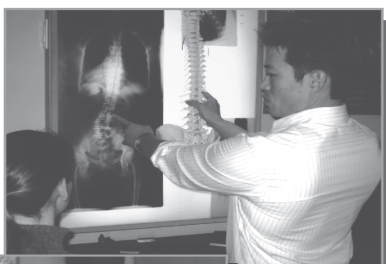
위 시간은 3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나 황산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을 썼을 때보다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폐 상태도 호전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엑스레이가 값싸고 전 세계적으로 가능한 코로나19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연구진은 환자 1명이 방사선 치료 후 많은 양의 산소 공급이 필요했고 전신 혈액 응고와 콩팥 이상이 나타났으며, 보름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자 1명은 가벼운 메스꺼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SCMP는 이 논문에 대해 "임상시험 대상이 적은 만큼 통계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다수 코로나19 환자가 바이러스보다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치료가 이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환자에게 회복할 시간을 벌여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세웅 척추신경 교정의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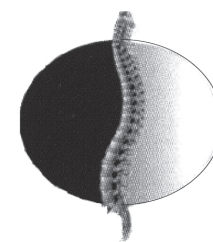
**DR. MICHAEL YOON**  
**CENTURY CHIROPRACTIC WELLNESS CENTRE**



『뱀 마디마디가 아프십니까?』  
옛말에...  
굴러가는 돌속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벼운 운동이나 교정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척추신경이상에서 오는 증세:  
두통과 목이 뻐뻐하고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저리고,  
어깨와 허리가 통증이 오고  
관절마다 신경통이 오고,  
두통후 각종 후유증이 오는 것 등이  
척추신경에서 오는 증세입니다.



교통사고 = 척추  
운동사고 = 관절  
직장사고 = 근육

### 교정

건강비법(秘法)은?

퀘면·퀘식·퀘변이 되어야 합니다.  
잘먹고 잘자고 잘배출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체의 몸통은 관절마디마디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디마디를 운동과 교정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정을 해 줌으로서  
탈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낼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 윤세웅 원장 (교정사)

약력: 미국 샌프란시스코 5년 개업 운영  
한국 교정사학 지도위원  
대한 합기도 검무관 캐나다부분 사범  
현,세기 척추교정의료원 운영

TEL: (403)289.8285 FAX: (403)338.1808 #312A - 3630 BRENTWOOD ROAD N.W. CALGARY AB. T2L1K8

윤세웅 척추신경의는 미국내 굴지의 각종 운송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교정치료 하는 실력있는 척추신경전문의 입니다.